

#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몇 년 전 신앙생활을 하는 제 친구 부인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기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고 정색을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장애인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장애가 무엇이기에 죽음조차 거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가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 장애인정책관으로 발령을 받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의 특성들을 살펴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과 오해들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도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장애가 제 속에도, 아니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조그만 상처나 감기몸살만으로도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귀찮아지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장애체험을 해보라는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애체험을 한다고 하여도 장애인의 마음과 그 삶을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장애인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들은 하반신이 없는 박대운 선생의 강연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장애가 불

편한 것이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장애인 친구들이 훨씬 더 불평불만이 많고 불행히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 저에게 늘 감동을 줍니다. 오래 전 심한 뇌성마비를 가진 송명희 시인의 시를 듣고 묵놓아 운적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건강한 장애인 행복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프로그

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계의 오래된 바람중의 하나는 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회 전체가 부담을 함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독일을 다녀오신 분으로부터, 독일의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있는 반에서 수업을 받으려는 학부모가 많아서 수업료를 더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지내면 감수성이 발달하고 인생을 살

한정된 재원으로 장애인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하여도 멀리 보고 길게 보면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의 작은 것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부모들에게 기쁨은 아니지만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다고 하니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장애인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하여도 멀리 보고 길게 보면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의 작은 것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장애아를 가진 제 친구의 부인이 편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 다시 4월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